



[hananimuibep.org](http://hananimuibep.org)

## 부록 8i: 십자가와 성전

이 페이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했을 때에만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들을 탐구하는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 [부록 8a: 성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법](#)
- [부록 8b: 제사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c: 성경의 절기들 — 오늘날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d: 정결 법 — 성전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e: 십일조와 첫 열매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f: 성찬 예식 — 예수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이었다](#)
- [부록 8g: 나실인과 서원 법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h: 성전과 관련된 부분적·상징적 순종](#)
- [부록 8i: 십자가와 성전 \(이 페이지\)](#)

십자가와 성전은 서로 적이 아니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폐지하는 두 개의 “단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합니다(시편 119:89; 시편 119:160; 말라기 3:6). 제사와 제사장직과 정결 법을 포함한 성전 체계는 바로 그 동일한 영원한 율법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단 하나의 계명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계명들이 이미 말하고 있던 참된 깊이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성전은 제사를 끝내기 위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파괴되었습니다(역대하 36:14-19; 예레미야 7:12-14; 누가복음 19:41-44). 우리의 과제는 십자가에 대한 인간적 사상으로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를 발명하지 않고, 이 진리들을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 겉으로 보이는 갈등: 어린양과 제단

겉으로 보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한편에는 제사와 예물과 제사장 봉사를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레위기 1:1-2; 출애굽기 28:1)
- 다른 한편에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소개되는 예수가 있습니다(요한복음 1:29; 요한일서 2:2).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결코 내리지 않은 결론으로 뛰어갑니다. “예수가 어린양이라면, 제사는 끝났고, 성전은 끝났으며, 그것들을 명령한 율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예수 자신은 그 논리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가장 작은 획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5:17-19; 누가복음 16:17). 하늘과 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과 성전에 관한 계명들은 예수의 입으로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성전 법을 지우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의 예수 — 취소 없는 성취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불렀을 때(요한복음 1:29), 그는 제사 제도의 종말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드러진 모든 제사가 지니고 있던 참된 의미를 선포한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그 자체로는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베드로전서 1:19-20). 그 능력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참된 어린양의 장차 있을 희생을 가리키는 표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스스로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민수기 23:19).

처음부터 용서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주어졌습니다.

-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신명기 11:26-28; 에스겔 20:21)
-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정결의 수단(레위기 17:11; 히브리서 9:22)

고대 이스라엘에서 순종하는 자들은 성전으로 나아가 율법이 요구한 제사를 드렸고, 실제이지만 일시적인 언약적 정결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순종하는 자들은 아버지에 의해 참된 어린양이신 예수께로 인도되어 영원한 정결을 받습니다(요한복음 6:37; 요한복음 6:39; 요한복음 6:44; 요한복음 6:65; 요한복음 17:6). 패턴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반역자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이사야 1:11-15).

예수가 참된 어린양이라는 사실은 제사에 관한 계명들을 찢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결코 상징을 가지고 장난치신 적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진지했으며, 모든 것은 실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 십자가 이후에도 제사가 계속된 이유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제사를 폐지하려 하셨다면, 성전은 그날 바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지만(마태복음 27:51), 건물은 그대로 서 있었고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사도행전 2:46; 사도행전 3:1; 사도행전 21:26).

- 제사와 성전 의식은 날마다 계속되었으며(사도행전 3:1; 사도행전 21:26), 사도행전 전체는 기능하는 성전을 전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제사장직은 계속 봉사했습니다(사도행전 4:1; 사도행전 6:7).
- 절기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지켜졌습니다(사도행전 2:1; 사도행전 20:16).
- 부활 이후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전에 있었으며(사도행전 2:46; 사도행전 3:1; 사도행전 5:20-21; 사도행전 21:26), 예수를 믿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열심”이었습니(사도행전 21:20).

예수의 죽음 이후 제사가 즉시 죄가 되거나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한 율법도, 예수의 말씀도, 선지자의 예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후에는 동물을 드리지 말라. 제사에 관한 내 율법은 폐지되었다”라는 예언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 봉사가 계속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민수기 23:19).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명령하신 것을,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유로 조용히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제사가 그 순간부터 반역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도 성전 봉사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성소에 묶인 어떤 계명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셨음을 보여 줍니다. 모든 제물, 모든 정결 의식, 모든 제사장 직무, 모든 민족적 예배는 그것들을 세운 율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했습니다.

## 제사 제도의 상징적 성격

제사 제도 전체는 그 설계상 상징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선택 사항이었기 때문도, 권위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완성하실 현실들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결은 일시적이었고, 병은 다시 올 수 있었으며, 부정은 다시 생길 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제사조차도 반복해서 드러져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와 죽음의 최종적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죽음 자체를 멸하실 날을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상징들이었습니다(이사야 25:8; 다니엘 12:2).

십자가는 그 최종성을 가능하게 했지만, 죄의 참된 종말은 최후의 심판과 부활 이후에야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요한복음 5:28-29). 성전 봉사가 실체가 아니라 영원한 실재를 가리키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그것들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성전을 제거하실 때까지 유효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들을 취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의 끝에서 완성하실 실재들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 상징을 끊어 내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 오늘날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사에 관한 계명들이 결코 폐지되지 않았고, 십자가 이후에도 성전 체계가 하나님께서 친히 끝내실 때까지 지속되었다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답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동일한 패턴에 있습니다. 용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역대하 7:14; 이사야 55:7),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제사를 통해 주어졌습니다(레위기 17:11).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순종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 피 흘림을 통해 정결을 받았습니다(레위기 4:20; 레위기 4:26; 레위기 4:31; 히브리서 9:22). 오늘날 순종하는 자들은 죄를 제거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어린양,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 정결함을 받습니다(요한복음 1:29).

이것은 율법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사에 관한 계명들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마태복음 5:17-19). 하나님께서 성전을 제거하셨을 때, 순종과 정결이 만나는 외적 장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시편 103:17-18; 전도서 12:13).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메시아께 올 수 없으며(요한복음 6:37; 요한복음 6:39; 요한복음 6:44; 요한복음 6:65; 요한복음 17:6), 아버지는 오직 그분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만 이끄십니다(마태복음 7:21; 마태복음 19:17; 요한복음 17:6; 누가복음 8:21; 누가복음 11:28).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순종이 사람을 제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순종이 사람을 메시아께로 이끕니다. 외적인 장면은 바뀌었지만,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불충한 자들은 제사로 정결해지지 않았고(이사야 1:11-16), 오늘날도 불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지지 않습니다(히브리서 10:26-27).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그분이 정하신 제사에 대한 복종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동물의 피나 어떤 곡물 제사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참된 평화를 가져온 적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지만, 화해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히브리서 10:4), 메시아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미리 알려졌다는 것(베드로전서 1:19-20)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입니다. 에덴 이후로 하나님과의 평화는 언제나 완전하고 죄 없으신 독생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요한복음 1:18; 요한복음 3:16). 모든 제사는 그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요한복음 3:14-15; 요한복음 3:16). 물질적 제물들은 죄의 심각성과 용서의 대가를 인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도록 허락된 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제거하셨을 때, 영적 실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물질적 형태뿐이었습니다. 실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곧, 아들을 통한 제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와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이사야 53:5). 외적 상징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에 멈췄지만,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들을 통해 주어지는 내적 정결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히브리서 5:9).

##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

만일 서기 70년의 성전 파괴가 “제사를 폐지하기 위함”이었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며, 그 성읍이 방문의 때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19:41-44).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누가복음 21:5-6).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마태복음 23:37-38). 이것은 제사가 악이 되었다는 새로운 신학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심판의

패턴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첫 성전이 파괴된 이유와 같습니다(역대하 36:14-19; 예레미야 7:12-14).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전은 율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 제단은 제사가 경건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 때문에 제거되었습니다.

계명들은 언제나처럼 기록된 채로 남아 있으며 영원합니다(시편 119:160; 말라기 3:6).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은 계명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 십자가는 율법 없는 새 종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불리는 것의 대부분은 단순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제사, 절기, 정결 법, 성전, 제사장직은 모두 폐지되었고, 십자가가 그것들을 대신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참된 제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구약에 주어진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마태복음 7:21; 마태복음 19:17; 요한복음 17:6; 누가복음 8:21; 누가복음 11:28).

십자가는 누구에게도 다음과 같은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 성전 법을 취소할 권한
- 유월절을 대신할 성찬 예식 같은 새 의식을 발명할 권한
- 십일조를 목회자 급여로 바꿀 권한
- 하나님의 정결 체계를 현대 교리로 대체할 권한
- 순종을 선택 사항으로 만들 권한

예수의 죽음은 사람이 율법을 다시 쓰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죄와 순종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시는지를 입증할 뿐입니다.

## 오늘 우리의 자세: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존중한다

십자가와 성전은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진리에서 만납니다.

- 율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마태복음 5:17-19; 누가복음 16:17).
-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누가복음 21:5-6).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 오늘날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은 변명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 성전에 의존하는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제단과 제사장직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그대로 존중하되 실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인간적 방식으로 제사 제도를 재건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 제사 법을 폐지되었다고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비어 있는 성전 산 사이에 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사실을 압니다.

- 예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참된 어린양입니다(요한복음 1:29; 요한복음 6:44).
- 성전 법은 영원한 규례로 기록된 채 남아 있습니다(시편 119:160).
- 지금 순종이 불가능한 이유는 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며, 그것은 대체물을 발명할 허락이 아닙니다(누가복음 19:41-44; 누가복음 21:5-6).

## 십자가와 성전을 함께 붙들다

올바른 길은 두 극단을 모두 거부합니다.

- “예수가 제사를 폐지했으니 율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도 아니고
- “하나님의 성전 없이, 우리 방식으로 지금 제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도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다음을 고백합니다.

- 예수는 아버지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복음 1:29; 요한복음 14:15).
- 하나님께서 성전을 폐지가 아니라 심판으로 제거하셨음을 받아들인다(누가복음 19:41-44; 마태복음 23:37-38).
- 오늘날 물리적으로 순종 가능한 모든 계명에 순종한다.
- 성전에 의존하는 계명들을 인간의 의식으로 대체하지 않음으로써 존중한다.

십자가는 성전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성전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을 회복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의무는 분명합니다.

-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라.
- 지킬 수 없는 것은 존중하라.
- 예수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신 율법을 바꾸는 핑계로 십자가를 사용하지 말라(마태복음 5:17-19).